

과 더불어, 자신의 형태가 빠져나가는 썰물과 밀려들어 오는 밀물”(N; KSA11, 610f. (38 [12]))이다. 따라서 아이의 신성한 긍정은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다른 이름이다.

또한 아이의 놀이는 힘의 충만에 대한 한 표시이다: “힘이 축적된 자의 이상으로서의, ‘어린이다운 것’으로서의 ‘놀이.’”(N; KSA12, 129 (2 [130])). 놀이와 힘과 그리고 세계의 관계를 니체는 1885년의 유고의 한 단편에서 기술한다. “그대들은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 이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힘이며, (...) 힘들과 힘의 파동의 놀이로서 하나이자 동시에 ‘다수’이고 (...) 모순의 놀이로부터 조화의 즐거움으로 되돌아오고, (...) 이러한 세계가 힘에 의지다 — 그리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N; KSA11, 610f.(38 [12])). 힘의 파동놀이로서의 세계는 “영원한 자기 창조와 파괴의 디오니소스적 세계”(ebd.)²⁹⁾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여기서 『차라투스트라』의 「세 가지 변화」에 등장하는 ‘놀이하는 아이’와 디오니소스의 내적 근친성을 간파할 수 있다.³⁰⁾ 니체는 놀이하는 아이와 디오니소스에 관한 관계를 1884년의 유고에서 간명하게 밝히고 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보다 고상한 것은 ‘나는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신적 인간, ‘나는 하고자 한다’는 것보다 고상한 것 그것은 ‘나는 존재한다! 그리스 신들은 것이다.’”(N; KSA11, 105(25 [351])).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제기했던 Aion=놀이하는 아이 = 디오니소스의 등식의 정당성을 발견한다

6. 맺는 말

‘세계는 놀이이다’는 니체의 놀이 사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니체에

29)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힘상승(Kraftsteigerung)과 충만”, “보다 많은 힘”(GD; KSA6, 116)을 의미한다.

30) Wohlfart의 확신에 따르면, ‘놀이하는 아이’는 아이온(Aion)과 일치하고 그것은 파괴와 생성을 본질로 하는 디오니소스의 일관성 쌍둥이이다(Wohlfart 1999: 76).

따르면, 세계를 초월적 목적이나 기계적인 인과의 연쇄로 설명하려는 일체의 욕망은 생성의 세계를 항상 새롭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부터 기원한다. 인간이 생성의 세계를 이성의 법칙과 도덕의 거미줄로 묶는 시도는 처음부터 자기부정을 내포한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가치창조의 주체임을 포기하는 인간의 비겁과 가치창조의 무능은 바로 니힐리즘의 뿌리이다. 니힐리즘의 극복은 바로 지금까지 모든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의 허위를 폭로하는데서 출발한다. 초월적 목적과 기계적 인과 그리고 선·악의 차원이 아닌 다른 가능한 세계이해의 방식은 없는가? 과연 그러한 세계가 가능한 것인가? 니체의 오랜 계보학적 탐구의 종착점은 헤라클레이토스였다.

니체의 놀이 사상은 헤라클레이토스에 빚지고 있다. ‘Aion’과 ‘장기놀이 하는 아이’에서 니체는 실존과 세계를 형이상학적, 도덕적 관점과 다르게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 니체는 헤라클레이토스 놀이 사상을 자기철학의 화두로 삼는다. ‘나는 위대한 과제를 대하는 방법으로 놀이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니체의 공표는 바로 자신의 철학이 놀이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니체 철학의 전제는 곧 바로 놀이에 대한 그의 이해의 변천을 의미한다. 놀이는 예술의 놀이에서 인식의 놀이로 그리고 세계놀이로 확대된다. 이 점이 니체의 놀이 개념이 가진 특징이다. 놀이가 인식적·윤리적 차원과 다른 인간의 제3의 능력으로 간주하고 놀이를 ‘예술’ 철학의 영역에 수용한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놀이를 예술, 인식, 실천 등의 철학의 주제 전반으로 확장시킨 것은 니체가 유일하다. 니체의 놀이 사상은 자기 동일성의 원리에 근거한 근대의 주체성 철학과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그의 놀이 사상이 ‘현대성’비판과 무관하지 않음을 간파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대성과 니힐리즘은 동전의 양면이다. 현대성과 근대성의 극복을 위한 니체 철학의 핵심은 ‘힘에의 의지’, ‘영원회귀’, ‘운명애’ 등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니체에 따르면,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은 ‘디오니소스 다시 한번 다’이다. 둘은 모두 가치의 재평가와 가치의 창조가 니힐리즘을 극복하는 길임을 가르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써 놀이는 전환의 힘을 가진다. 즉 그것은 고통을 기쁨으로, 권태를 진지함으로,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전환의 힘은

곧 바로 가치의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놀이는 영원히 자신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디오니소스적 세계의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글의 서두에서 도발적으로 제기했던 주장을 환기하자. 니체에게 Aion과 놀이하는 아이, 주사위 놀이하는 신 그리고 구르는 바퀴의 놀이를 하며 신성한 긍정의 소유자인 아이는 누구인가?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다. 그는 디오니소스이다. 니체는 니힐리즘의 극복을 가치가 전도되는 순간으로 보며, 그것을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인 정오와 디오니소스가 현현(Epiphanie)하는 순간에 비유한다. 바로 그때 “일체의 영원이 우리가 긍정하는 이 유일한 순간에 인정받고 구원받고 정당화되고 긍정된다.”(N; KSA12, 307f.(7 [38])).

【니체 저서 약어】

- Also sprach Zarathustra* = Za
- Die dionysische Weltanschauung* = DW
- Die Geburt der Tragödie* = GT
- Die Philosophie im tragischen Zeitalter der Griechen* = PHG
- Ecce homo* = EH
- Die fröhliche Wissenschaft* = FW
- Morgenröte* = M
- Nachlaß* = N
- Richard Wagner in Bayreuth* = WB
- Zur Genealogie der Moral* = GM

참고문헌

김인곤 외 옮김(2005),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서울 아카넷
 정낙림(2005), 「디오니소스 다시 한번 더 — 니체의 디오니소스 — 자그레우스 신
 화의 수용과 철학적 의미」, 『니체연구』 제7집 한국니체학회 서울 선학출판사

- 정낙림(2007),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 『철학연구』 제101집, 대한철학회, 대구: 정림사.
- 이경신 옮김(1999), 『니체와 철학』, 서울: 민음사; Deluze, G. (1962), *Nietzsch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김기선 옮김(2003),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 서울: 책세상; Nietzsche, F.(1993), “Die vorplatonischen Philosophen”, in: *Nietzsche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II4. Berlin: Walter de Gruyter.
- Aichele, A.(2000), *Philosophie als Spiel. Platon — Kant — Nietzsche*, Berlin: Akademie Verlag.
- Borsche, T.(1985), “Nietzsche Erfindung der Vorsokratiker, in: *Nietzsche und die philosophische Tradition*, Bd.1, hg. v. J. Simon, 62-87, Würzburg: Königshausen und Neumann Verlag.
- Cancik, H.(2000), *Nietzsches Antike: Vorlesung*, Stuttgart u. a.: J.B. Metzler Verlag.
- Derrida, J.(2000), “Fines homini”, in: *Randgänge der Philosophie*. Wien: Passagen Verlag.
- Diels/Kranz(1960), “Herakleitos”, Fragment B52, in: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Bd.1, Berlin: Weidmannsche Verlagsbuchhandlung.
- Durić, M.(1979), “Die antiken Quellen der Wiederkunftslehre”, in: *Nietzsche-Studien* 8, 1-16, Berlin: Walter de Gruyter Verlag.
- _____.(1985), *Nietzsche und die Metaphysik*, Berlin u.a: Walter de Gruyter Verlag.
- Fink, E.(1960), *Nietzsches Philosophie*,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 Gadamer, H. G.(1986),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J.C.B. Mohr Verlag.
- Fleischer, M.(1988), “Dionysos als Ding an sich. Der Anfang von Nietzsches Philosophie in der ästhetischen Metaphysik der “Geburt der Tragödie””, in: *Nietzsche Studien* Bd. 17, 74-90, Berlin u.a: Walter de

Gruyter Verlag.

- Hershbell, J.P./Nimis, St. A.(1979), "Nietzsche and Heraclitus", in: *Nietzsche-Studien* Bd. 8, 17-38, Berlin u.a: Walter de Gruyter Verlag.
- Hölscher, U.(1979), "Die Wiedergewinnung des antiken Bodens. Nietzsches Rückgriff auf Heraklit", in: *neue hefte für philosophie* 15/16: *Aktualität der Antike*, Göttingen.
- Joel, K.(1905), Nietzsche und die Romantik. Jena.
- Bruse, K.-D.(1984), "Die Griechische Tragödie als "Gesamtkunstwerk" — Anmerkungen zu den musikästhetischen Reflexionen des frühen Nietzsche", in *Nietzsche Studien* Bd. 13, 156-176, Berlin u.a: Walter de Gruyter Verlag.
- Müller, E.(2005), *Die Griechen im Denken Nietzsches*, Berlin u.a: Walter de Gruyter Verlag.
- Kropfinger, K.(1985), "Wagners Musikbegriff und Nietzsches "Geist der Musik", in: Nietzsche Studien Bd. 14, 1-12, Berlin u.a: Walter de Gruyter Verlag.
- Nietzsche, F.(1999),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G. Colli u.a.(Hg),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Oehler, R.(1904), *Friedrich Nietzsche und die Vorsokratiker*, Leipzig.
- Pieper, A.(1990), *Ein Seil geknüpft zwischen Tier und Übermensch. Philosophische Erläuterungen zu Nietzsches erstem Zarathustra*. Stuttgart: Klett-Cotta Verlag.
- Wagner, R.(1984), *Oper und Drama*. Stuttgart: Philipp Reclam Verlag.
- Wohlfart, G.(1991), 'Also sprach Herakleitos'. *Heraklits Fragment B52 und Nietzsches Heraklit-Rezeption*, Freiburg (Breisgau) u.a: Alber Verlag.
- _____ (1999), *Das spielende Kind, Nietzsche: Postvorsokratiker-Vorpostmoderner*, Essen: Die blaue Eule Verlag.

원고 접수일: 2007년 3월 31일

게재 결정일: 2007년 5월 21일

ABSTRACT

Aion, Spielendes Kind und Dionysos:
Eine Interpretation des Spielbegriffs Nietzsches

Chung, Nak-Rim

In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darum, das Denken Nietzsches im Hinblick auf den Begriff des Spiels zu erörtern. Der Begriff "Spiel" ist in allen Entwicklungsphasen der Philosophie Nietzsches zu finden. Für Nietzsche ist der Spiel-Gedanke nicht nur Angelpunkt beim Bruch mit dem metaphysisch-moralischen Denkmodell, sondern auch Ansatz zur Überschreitung der Grenzen des traditionellen abendländischen Denkschemas. Nietzsche erblickt im Spiel das konkrete Beispiel einer möglichen menschlichen Tätigkeit, die sich nicht durch vernünftige Zwecke und Ziele leiten lässt, sondern im Grunde zweck- und ziellos ist.

Auf den Gedanken des Spiels ist Nietzsche durch Heraklit gekommen. Im Heraklit-Fragment B 52 erblickt Nietzsche das, was er die 'ästhetische Grundkonzeption' vom Spiel der Welt nennt. Nietzsche verbindet vor allem seine Auffassung des dionysischen Phänomens bezüglich der griechischen Tragödie mit dem Bild des spielenden Kindes bei Heraklit.

Die berühmte Rede Zarathustras von den drei Verwandlungen des

Geistes enthüllt die tiefsten Motive des Spielgedankens. Das Bild des spielenden Kindes ist als zentrales Motiv in Nietzsches Spätphilosophie einzubeziehen, so dass es in engste Beziehung sowohl mit dem Gedanken vom Willen zur Macht als auch mit dem Wiederkunftsgedanken zu bringen ist. Denn wer ist das Kind in der dritten Verwandlung des Geistes? Das spielende Kind, so stellt sich heraus, ist ein anderer Name für Dionysos. Dionysos ist das spielende Kind par excellence.

